

의료기기/화장품

순수 내수보단 인바운드와 수출주

박종현

의료기기 | alex.park@daolfn.com

● 희비가 갈린 실적

시장 기대치가 높았던 파마리서치/에이피알을 제외하고, 휴젤/아모레퍼시픽/대웅제약/인바디/씨젠 등 수출 매출 비중이 50%가 넘거나, 인바운드 노출도 높은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 지속. 특히나, 파마리서치와 에이피알은 당초 투자 포인트였던 유럽 수출과 미국 오프라인 확장이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씨젠은 HPV 스크리닝 시장에서의 MS 확대를 확인했으며, 휴젤은 중국에서의 구조적인 성장 지속되는 과정에서 미국 직판 진입 기대감이 과소 반영 구간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업종에 대한 선호도 및 투자 비중 확대 권고. Downside risk는 급격한 환율 안정이나, Q 중심의 성장으로 해당 성장폭 유지 전망. 아직 달바글로벌/한국콜마/실리콘투/코스메카코리아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 남아있으며, 해당 기업들 또한 양호한 실적 발표 전망

● 8/11 일 수출과 의료관광 데이터가 관건이다

특신/필러/화장품 모두 6월 대비 7월 성장(MoM +6%, +9%, +2%)하며, QoQ 성장에 대한 기대감 유지. 특히나, 8/11 일에 발표될 10월 잠정 수출 데이터 및 의료 관광 데이터에서의 성장률이 3Q26에도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평가받는 분기점이 될 전망

● 중소형주에도 여력이 있다면?

단기 저점을 기록했던 7/29 일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은 각각 +11%, +21%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가 확인. 상기한 모멘텀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커버리지외 중소형주는 글로벌텍스프리와 메세이상. 글로벌텍스프리는 8/6 일 MIRI Capital 5.83% 지분 공시(투자 목적: 일반 투자). 글로벌텍스프리는 1Q26 로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었으며, 현금성자산 1,300 억원 수준(시가총액 3,600 억원)으로 배당 가능성 확인. 1Q26 ROE 26%. 최대주주 지분율 24.6%, 2, 3 대주주는 VIP자산(9.93%)와 국민연금(6.61%). 메세이상은 전시주최 사업 영위 중으로 2025 년 배당성향 33%(시가배당률 3.8%), M&A 재투자를 통한 외형 성장과 배당 성향 확대 주목

● 체크포인트 및 Implication

최선호주는 파마리서치(BUY, TP 55 만원)와 휴젤(BUY, TP 43 만원), 에이피알(BUY, TP 56 만원), 달바글로벌(BUY, TP 34 만원) 유지. 순환매 지속 전망 시, 상대적으로 실적 추정치 우상향 가능성 있는 미용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 지속 기대. 업종 선호 의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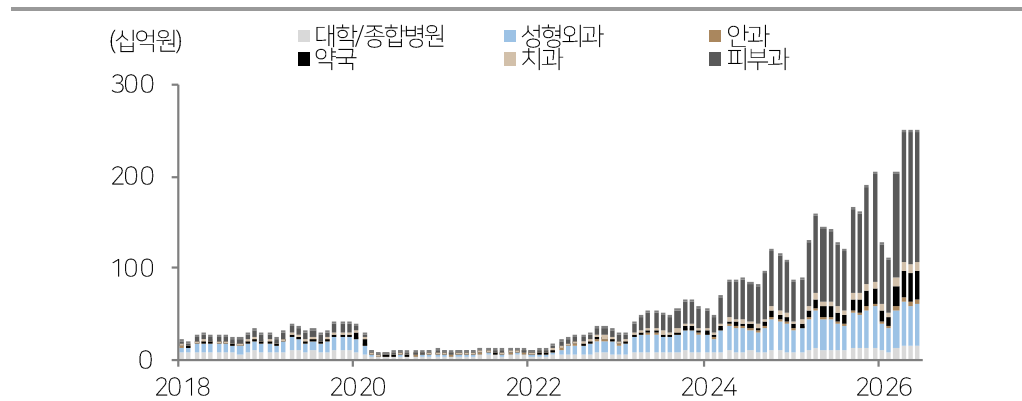
Fig. 1: 수출 데이터

(단위: 십억원, %, %p)

(천달러)	2026.07 월	2025.07 월	YoY(%)	2026.06 월	MoM(%)
특신	62,705	24,850	+70.6%	59,204	+5.9%
미국	26,583	9,008	+195.1%	21,205	+25.4%
캐나다	1	3	-57.4%	20	-93.9%
중국	6,493	7,050	-7.9%	10,605	-38.8%
브라질	9,069	3,903	+132.3%	5,030	+80.3%
태국	4,361	3,399	+28.3%	1,739	+150.8%
필러	409,592	242,241	+69.1%	376,656	+8.7%
미국	93,794	45,380	+106.7%	80,797	+16.1%
화장품	1,025,866	722,386	+42.0%	1,009,416	+1.6%

Source: 관세청, 다올투자증권

Fig. 2: 의료관광 소비금액 추이



Source: 한국관광 데이터랩,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3.5%	HOLD : 6.5%	SELL : 0.0%
-------------	-------------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